

정보유출 2차 피해 없다더니... '카드 불안' 확산

스팸 문자 폭주... 보이스포싱·스미싱 피해 우려

사상 최악의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자결제사기(스미싱·Smishing)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사기를 당한 2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가 1억400만 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7일 개인 정보 유출 확인을 개시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발생했다.

롯데카드 고객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갑자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5000원 결제 문자가 뜨자 롯데카드 불법신고 상담센터에 연결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10분 간격으로 계속 추가 결제 문자가 와서 인터넷을 접속했더니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결제된 게임회사들에 피해 신고 메일을 보냈으나 일부는 그대로 결제된 상태였다.

이와함께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강모(35)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THB(태국바트)로 68만여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곧바로 카드결제 은행으로부터 "해외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다. 부정사용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기임을 깨닫게 됐다. 강씨의 거래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인 만큼 부정사용대금으로 처리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차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사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

이런 문자 오면 스미싱 의심해야

신호위반내역(교통정) 219.108.22.97

NH농협카드 이벤트... 연회비의 10% 포인트로 적립

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라'

메시지와 함께 링크된 주소 클릭하도록 유도

금융사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에 링크 주소 포함

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해당 카드사 민원센터에는 "신호위반내역(교통정) 219.108.22.97", "NH농협카드 인터넷 신규발급 이벤트에 따라 연회비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드렸습니까" 등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란 정부의 공인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과 같은 기본정보에 결제계좌, 신용한도, 카드유효기간, 자동차 보유 대수, 대출 관련 정보 등 19가지에 이른다"며 "세부적인 정보

가 유출된 만큼, 전화로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사칭의 상담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사칭, 비밀번호나 카드 뒷면의 CVC값 등을 물어볼 때 이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20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이용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Smishing)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에 링크 주소를 넣는 방법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출된 금융회사명, 고객명을 함께 활용할 가능성(예를 들면 ○○금융회사 ○○○고객님)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연남뉴스

AI 일시 영업중지 조치 어기고

양동시장 일부 상인들 생닭·오리 판매 논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생닭·오리 판매업소에 대한 일시 영업중단 조치(광주일보 1월 20일 6면)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 일부 생닭·오리 판매업소에서 가금류의 도축과 판매가 여전히 진행되고 나타났다.

양동 시장 내 닭전 머리 일대 생닭 판매업소의 영업 중단은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지난 18일 밤 10시부터 20일 밤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표됐다.

20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닭전머리 일대 10여개소의 생닭·오리 판매점은 오전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다.

일부 가게의 경우 셔터를 반쯤만 연 채 내부에서 여전히 생닭과 오리 도축이 버젓이 이뤄졌고 암거래하듯 현금을 받은 상인은 가게 뒤편으로 손님이 직접 고른 살아 있는 오리들을 들고 가 도축 판매했다.

상인 일부는 땅을 보듯 주변을 살피더니 급하게 손질하던 닭과 오리들의 부속물을 물로 씻어내고 가게 셔터를

을 내려버렸다.

일부 상인은 정부 조치를 받아들여 20km 떨어진 먼 곳에서 일부러 생오리를 사러왔다는 손님에게 명함을 쥐여주고 돌려세우기도 했다.

그는 "먹고 살려고 몰래 닭 잡는 가게들이 몇 곳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안 하고 있지만 두 번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는 '스탠드스틸' 조치가 구멍이 뚫린지 파악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 담당공무원은 "각 구청으로부터 생닭·오리 판매업소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일선 구청에 현장에 나가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실 전통시장에 가금류 도축·판매는 원래 음성화된 불법행위"라며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협회차원으로 협조요청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관린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공공기관·민간사업자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다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연남뉴스

동부서 조사받은 50대

갑자기 쓰러져 병원행

20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동부경찰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장모(58)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기와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장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자수한 뒤, 이 날 광주동부서에서 경찰의 기초조사를 받은 후 민원인 대기실에서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당뇨와 협심증을 앓고 있다고 말한데다, 안색이 좋지 않아 들어가라고 해도 장씨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희기자 glee@



설 준비 가래떡 썰기 다가오는 설을 맞아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가래떡을 썰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벌금 72억 구형

조희준 전 회장은 징역 5년

검찰이 거액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5

년을 각각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경영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라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

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2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연남뉴스

건설회사 소장 협박 돈똥은 일간지 기자 입건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도로 공사과정의 부실시공 의혹 등을 기사화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지역 일간지 전 장성 주재기자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장성 지역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 부실시공 의혹을 다룬 기사를 내보낸 뒤 '기사를 더

쓰겠다'며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협박, 1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당시 건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도로공사에 참여했다가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원청 회사에서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게 된 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버스정류장 '바바리맨' 출근길 여성들 보며 못된 짓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9)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생촌동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못된 짓을 한 혐의.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도망가는 김씨를 300m정도 추격 끝에 제압했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오줌이 마려워서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내리게 됐다"며 황실수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춘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사 파견 업무**
경의 스텝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각 분야별 명강사별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든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 010-3690-7790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